제34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강사: 박진우
소속: 숙명여자대학 교수
주제: 여성천황론과 상징천황제
일시: 2006년 04월 04일 (12 : 00 – 14 : 00)

*강연내용
1989년 1월 9일 아키히토 천황의 즉위 이후, 일본의 천황제는 이전의 그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키히토 천황이 국민과 같이 헌법을 지키겠다고 언급한 것은 일본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으며, 황실 외교의 적극적인 전개는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황실상을 정착시켰다. 2001년 '캄무천황의 생모는 백제계'라는 천황의 발언은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천황제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일례였다. 지금까지 천황과 황실은 일본인의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는 이미지를 보여왔는데, 이것이 바뀌어 다민족 국가를 대표하는 듯한 이미지가 된 것이다.
2001년 12월 1일, 황태자비의 왕녀 출산으로 일본에서는 여성천황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러한 황실의 국제화와 여성천황 논의 등, 변화된 모습은 남녀평등과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것인가. 또한 최근 들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내셔널리즘과 새로운 황실상은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
아키히토 천황의 즉위 후, 국민들의 황실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여론조사와 신년참하 방문자의 수의 감소현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천황에게 노골적인 찬미를 보내던 우익들도 외교, 방위, 교육 등에 관한 문제로 관심을 돌리면서, 일본문화의 본질을 천황제와 황실이 아닌, 자연환경, 문화, 일본어 등에서 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는 황실상을 모색하게 된 황실은 황실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1965년 후미히토의 탄생 이래 2001년 아키코 왕녀의 탄생까지 35년간 태어난 9명은 모두 딸이고, 남성의 황위 승계를 명시한 황실전범에 따르면 일본 황실은 결국 대가 끊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황실전범의 개정문제가 표면화되게 되었다.
천황제의 본질적인 성격은 황태자비의 출산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궁내청의 정보통제와 매스컴의 취재경쟁은 전 국민의 관심사를 조작하여 황태자비의 외출과 검진 때마다 경과를 발표하고 출산을 위한 입원과정을 생중계하는 등, 황태자비의 여성으로서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무시하고, 여성을 아이를 낳는 기계와 같이 다루었다. 이것은 혈통의 계승을 중시하는 천황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왕녀의 탄생과 여성천황 논의는 궁내청과 매스컴의 합작에 의한 여론조작으로 일정한 합의점에 도달해가는 과정에 있다. 왕녀 탄생에 대한 특집기사와 특별방송 편집 등을 통해 실망

을 국민의 기쁨으로 바꾸는 이러한 여론조작은 생명에 대한 순수한 축복조차 천황제를 지지하는 국민적 기쁨으로 탈바꿈 시켰다.

여성천황에 대해 찬성하는 쪽은 과거에도 여성천황은 존재했으며, 여성천황이 남녀평등의 사회적 보급에도 도움이 되며, 헌법 14조(법아래 평등)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천황제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자의 황위계승은 국가 고유의 전통이며, 여성천황은 황위의 불안정과 계열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천황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2005년 10월 25일, '황실전범에 관한 유식자 회의'에서는 천황의 혈통을 잇는 여성천황을 용인한다는 것을 전회일치로 결정했으며, 황위의 계승은 남녀를 불문하고 탄생순서에 따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보고서를 수상에게 보냈다.

여성천황의 용인에만 주목할 경우, 천황제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게 되기 쉽다. 우선, 1992년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가토우 관방장관은 황실문제와 일본사회의 남녀평등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왕녀 탄생 이후에 이러한 정치인들은 변절(남녀동권의 시대 제창)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황실의 대중적 인기를 높이는 것이 정치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황태자와 황태자비의 관계에서도 불평등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여성천황의 용인이 헌법의 규정에 합치한다고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남녀차별의 해소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낙관적인 생각이다. 황실의 혈통을 계승하는 대전제는 황통을 잇기 위한 '피의 계승'이라는 지상목적을 위해서는 여성의 개인적인 인격은 무시되어도 좋다는 인식에 있다. 여성천황의 용인과 황실의 변모가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황실전범을 개정해도 현실적으로 여성천황이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30-50 년 후이고, 그 사이 천황제의 폭력적인 내셔널리즘이 또 다시 분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無害한 군주제'로서의 천황제가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대한 왜곡과 은폐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천황은 '참전국가' 일본에 대응하여 천황제의 소프트한 평화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200 년의 동유럽순방 기자회견에서 아키히토 천황은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감, 가해자의식을 결여한 무신경한 역사인식을 나타내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천황제의 역사왜곡과 은폐기능은 여성천황의 실현에 의해 더욱 촉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어두운 역사와 천황제와의 관계는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망각되어 갈 것이다.

2 황자비가 현재 임신중인 관계로, 여성천화 논의는 다시 한풀 꺾인 상태이다. 만약 황실에 남자아이가 탄생할 경우에는 이제까지의 모든 논의가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